

나연참 (8463)
김종우



“통일 앞당겨 흘어진 가족 빨리 만났으면...”

‘김정일 사망’ 이산가족·새터민 반응

“체제 유지하려 폭압정치 할까 걱정”

19일 김정일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북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이나 실향민, 새터민들은 한자 앞을 보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이들은 김정일 사망이 냉랭해진 남북관계 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앞당길까 바랐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남북한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사는 이산

가족 김해룡(81) 할아버지는 19일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

김 할아버지의 가족은 원래 광주에 살았었다. 그런데 해방 직전 큰 형과 작은 형이 돈을 벌려 평양으로 올라가고,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 60여년이 넘는 세월을 생이별해야만 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해 11월 3~5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만난 조카 김민수(61)·순희(여·

53) 남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팔십 평생 한번도 본적이 없었지만 한 눈에 13년 전에 돌아가셨던 형님의 얼굴을 조카들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할아버지는 2부3일간의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와 틈날 때마다 조카들이 손에 쥐어준 가족사진을 끼내보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지난 1년을 보냈다.

“생생의 소원을 풀었던 지난해 그 날을 어떻게 잊을 것이며. 조카들의 얼굴에 작은 형의 얼굴이 그대로 비치더란 말이여. 김정일이 사망했다니,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이 합쳐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서 정권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니 조카들 걱정이 벌써 앞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그리고 기다리던 통

일이 늦던 빠르던 조카들이 다치지나 않았으면 하네.”

지난해 김 할아버지는 함께 북에 있는 여동생들을 만나고 온 최명순(86·광주시 동구 계립동) 할아버지도 이날은 고장 생각이 더 간절했다.

황해도 금천이 고장인 그는 1951년 1·4 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온 뒤 꼭 60년만인 지난해 금강산 땅을 밟고, 일흔이 넘은 두 여동생을 만났다. 그리고 이날 김정일의 사망소식에 두 여동생의 모습이 스쳐 지나고, 북한 정권이 하루 빨리 무너져 통일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다.

최 할아버지는 “하루 빨리 통일이 돼 고향에 있는 부모의 산소에 절을 올렸으면 한다”며 “죽기 전에 그날이 올랑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새 보금자리



지난해 북에 있는 두 조카를 만나고 온 김해룡 할아버지.

를 둔 새터민들도 급작스런 김정일 사망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5년 전 북한을 탈출한 이모씨는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김일성이 죽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폭압에 신음할 북한 주민들의 걱정이 앞선다”며 “특히 김정은은 세습준비 기간이 짧아서 체제 유지를 위해 폭압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민들 ‘김정일 사망’ 뉴스 촉각
해 북한 관련 긴급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와 스마트폰 등을 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행인 치고 달아난 여수시공무원 덜미

여수경찰은 19일 자동차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여수시청 직원 김모(44)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께 여수 시 만홍동 도로를 건너던 김모(48)씨

를 승용차로 치어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리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버려둔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길에 버려둔 차량에 대한 경찰의 조회로 덜미를 잡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SK 최태원 회장 소환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9일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청업투자사 베넥스인베

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몽세탁을 거쳐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에 전용하는 과정에 개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휘국교육감 “특채비리 유감” 표명

원론적 입장... 의혹 해소 미흡

광주시교육청의 공립교원 특채 비리와 관련, 책임있는 해명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장휘국 교육감이 처음 입장장을 밝혔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의혹 해소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장 교육감은 19일 ‘합격자 바꿔치기’ 사립교사 공립특채와 관련,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 답답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행정기관이 이러한 일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이 시교육청의 교사 특채 비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교과부 감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런(특채비리) 내용이 알려져 당혹스럽다”며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행정적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각성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이날 유감을 표명했으나, 비위의 진원으로 푸히는 교사특채와 관련한 실체를 밝히지 않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 5명을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일부 탈락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배정하기 한 사실이 교과부 감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노조와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장 교육감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반면, 전교조 광주지부는 탄압받은 전교조 교사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교사에게 원인을 제공한 게 사안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평가 있다.

/윤경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이리스’ 이은미 살해

남자 친구 1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3인조 트로트 걸그룹 ‘아이리스’의 보컬로 활동했던 이은미(24)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 친구 조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20대 청년이 여성 운전자 폭행범 복집아

쌍녀팔

○…집행유예기
간 중에 술에 취해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을
20대가 귀가중이던 응감한 20
대 청년에게 발각돼 경찰서행.

○…19일 광주시부경찰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25)씨는 지난 17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원룸 앞에서
승용차에 타려던 박(여·30)씨를 수 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가

박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장모(26)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박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데 뛰어웠다”며 “보기 드문 용감한 청년이어서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귀띔.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형 두려워 거짓말했다”

해경 살해 中 선장 범행 자백

불법조업 중 우리 해양경찰에 나포당하자 고(故) 이철호 경사는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선장 침모(42)씨는 “사형 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은 19일 오후 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서 이같이 밝혔다.

안성식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선장

청씨가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사형 당할까봐 겁이 나 거짓말을 했지만 대한민국 해경이 조사 과정에서 인력으로 대비됐고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치고 청씨와 류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후 수사 기록을 정리해 이르면 2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휴나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휴나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제조방법)특수재 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휴나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제작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립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립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계르마늄과 날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복 저 | ISBN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간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습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유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립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깨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립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기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립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